

과월절로 본 성만찬

도입

유대인의 과월절은 무려 3500년이나 된 명절이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은 무엇일까? 역시 과월절이다. 과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다.

과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5일에 시작되며 칠일 동안을 명절로 지킨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욥 토브(좋은 날)'라 부르며
이 날은 공휴일로 정하여 일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간의 5일 간은 '홀 하모에드(중간의 날들)'라 부르며

이 날엔 반 공휴일로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날은 정상 근무한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팔 일간을 명절로 지킨다. 이들은 팔 일중의 처음의 이틀과 마지막의 이틀을 포함한 사일 간을 '욥 토브'로 지킨다. 보통은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에 겹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과월절이 끝나는 안식 후 첫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준비

과월절 전 날이 되면 모든 유대인 어머니는 집안을 살살이 청소한다. 특별히 부엌은 구석구석까지 혹 누룩이 들어 있는 음식이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어머니의 청소가 끝나면 다음은 어린이 차례이다. 유대 어린이들은 촛불을 켜 들고 다니며 침대 밑이나 옷장 뒤 등을 살핀다. 흑시라도 누룩이 든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완전히 제거한다.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씨리얼 부스러기 등이 없는지 살핀다. 왜 이와 같이 누룩을 제거하는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부정을 제거하고 악을 없이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누룩에 대한 유대인의 부정적인 시각은 예수님에 의해서도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마태오복음 16장 11절에서 바리사이인과 사두가이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여기서의 누룩은 바리사이인과 사두가이인의 악한 교훈을 상징한다. 사도 바오로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누룩을 거짓교리에 비유하여 사용하였다. 유대인들은 묵은 누룩이 완전히 제거된 뒤에야 과월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누룩이 제거되면 과월절을 위한 식기나 그릇, 접시, 포크, 나이프 등을 준비한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과월절에는 과월절을 위한 식기나 그릇 등을 따로 준비하여 사용한다. 가정에 따라서는 가장 좋은 그릇들을 가보로 남겨 대대로 물려주면 과월절에만 사용하기도 한다.

키트니웃

'키트니웃'은 빵을 만들 수 있는 일곱 가지의 곡식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유대인들은 과월절이 되면 누룩이 든 빵을 금할 뿐 아니라 일체의 키트니웃을 금한다. 따라서 과월절이 되면 밀, 보리, 옥수수, 콩 등의 곡식을 일체 금한다.

카메츠와 세오르

유대인들은 과월절 기간의 칠일이나 팔일 동안 '카메츠'를 먹거나 소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해 있다. '카메츠'는 인공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발효된 밀, 호밀, 보리, 귀리, 맥아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집에 있는 모든 밀, 호밀, 보리, 귀리 등의 곡식을 없애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랍비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과월절이 시작되기 전 날 '카메츠'를 이웃의 이방인에게 팔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과월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방인으로부터 사들인다. 대부분의 회당은 회중들이 카메츠를 팔았다가 다시 살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세오르'는 곡식을 발효시키거나 발효를 돕는 모든 이스트나 그와 유사한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과월절 기간 동안 카메츠와 마찬가지로 '세오르'도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유의할 점은 이 법이 곡식과 관련된 법이라는 것이다. 발효된 곡식만이 금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도를 발효하여 만든 포도주는 금지되지 않은 식품이다. 곡식으로 만든 식품은 맛짜만 허용된다.

과월절 식사

과월절 식사는 보통 가장이 인도한다. 과월절에는 여섯 가지의 특별한 음식들이 준비된다. 정강이 뼈, 삶은 달걀, 쓴 나물(양고추냉이; horseradish), 파슬리(parseley)나 셀러리(celery) 혹은 양상추, 소금물, 하로셋 등의 음식이다. 쓴 나물(양고추냉이)을 먹으며 에집트의 노예 생활의 고역을 기억한다. 하로셋은 사과 으깬 것과 호도나 잣 등을 으깬 것에 꿀, 포도주 등을 부어 계피 등을 섞어 만든 고추장 비슷한 양념장의 일종이다. 색깔은 보통 황갈색이다. 하로셋이란 말의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학자들에 따라선 진흙을 뜻하는 “헤레스”라는 말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하로셋의 색깔이 진흙과 같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쓴 나물을 하로셋에 찍어 먹는다. 정강이 뼈와 삶은 달걀은 제 2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며 이 음식을 먹으며 성전에서 행하던 희생 제사를 기억한다. 소금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한다. 파슬리나 셀러리, 양상추 등은 봄이 왔다는 의미에서 생명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축복을 의미한다.

마짜

과월절 음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짜(누룩 안 든 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날 때 급히 떠났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못한 채 들고 나왔다는 출애굽의 긴박성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그러므로 마짜(무교병)은 과월절 식탁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과월절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보통 마짜 세 개를 포개어 접시에 올려놓고 냅킨으로 덮어놓는다. 마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과월절 첫날 저녁에 먹는 과월절식탁을 위한 마짜와 과월절이 끝나기까지 일주일간 평소에 먹는 보통 마짜이다. 과월절 첫날 저녁에 쓰기 위하여 만든 마짜를 가리켜 '계약의 마짜(마짜 쉘 미쯔바)'라고 한다. 고대의 마짜는 꽤 두꺼웠다. 탈무드 시대에는 마짜의 두께가 네 손가락 두께를 넘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쟁이 있었다. 당시엔 마짜를 만들기 위해서 세 사람의 여자가 동원되었다. 한 사람은 반죽하고, 한 사람은 마짜의 모양을 만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굽는 일을 하였다. 중세기에는 마짜의 두께가 손가락 하나 정도 이하로 얇아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짜는 점점 얇아지고 바삭 바삭해져서 오늘날은 얇은 비스킷 만해졌다. 오늘날은 기계로 대량 생산하여 슈퍼마켓에서 살수 있으며 보통 책 받침 정도의 크기이다. 마짜는 밀가루로 만든다. 그러나 유대종파 중 신비 파에 속하는 캐라이트 유대인들이나 약간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보리가루를 고집한다. 보리가루로 만든 마짜는 밀가루 마짜보다도 더 맛이 떨어진다. 마짜를 고난의 떡으로 이해하는 그들은 보리 마짜를 고집한다.

식사의 순서

식사의 순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과거의 고난과 슬픔을 기억하며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순서이다.

첫 번째 컵의 포도주를 따른 후 인도자가 세데르에 적혀있는 축복 문을 낭송함으로 과월절이 온 것을 축복한다. 축복이 끝나면 각자 부엌이나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는다. 파슬리나 셀러리 혹은 양상추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다. 야채는 새봄의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고 소금물은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상징한다. 다음은 마짜(누룩 안 든 빵)를 손으로 부러뜨린다. 세 개의 마짜(누룩 안 든 빵)를 포개서 쥔 다음 가운데를 잘라 접시에 내려놓는다. 첫 번째 컵의 포도주를 마시고 빈 컵에 다시 포도주를 채워놓는다.

과거를 기억하며

과월절 식사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출애굽사건을 재현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아버지(인도자)의 답변의 형식을 따른다. 전통에 따라 가장 어린 자녀부터 네 개의 질문을 던진다.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세 번, 신명기에서 한 번 모두 네 번 아버지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출 12:26; 13:8; 13:14; 신 6:20).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도록 고안된 질문이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왜 이 밤에 우리는 마짜를 먹습니까?
- 2)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물을 먹습니까?
- 3) 왜 우리는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물에 두 번 찍어 먹습니까?
또 쓴 나물을 하로셋에 찍어 먹습니까?
- 4) 왜 우리는 과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며 인도자(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경험하였던 일들을 이야기로 재현한다. 인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떠날 때 급박하여 누룩 안 든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설명한다. 에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하여 쓴 나물을 먹는다고 설명한다. 에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소금물에 파슬리를 찍어 먹는다고 설명한다.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뒤로 기대어 먹어도 될 만큼 여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뒤로 기대어 편히 음식을 먹는다고 설명한다. 이때 인도자를 위한 베개가 준비되며 인도자는 의자 뒤에 베개를 대고 편안한 자세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에 대한 설명을 재현한다. 인도자가 베개를 등에 대는 이유는 이전 옛날 같이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편안히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재미있는 것은 열 가지 재앙에 대한 관습이다. 인도자(아버지)가 에집트에 임하였던 열 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재현할 때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재앙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약간의 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준비된 그릇에 뱉어낸다. 이와 같은 일은 유대의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출애굽은 3500년 전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 과거의 사건은 과월절 식사를 통하여 현재의 유대인들에게 늘 새로운 출애굽으로 경험된다.

모든 식구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찬양하며 '다이에누'라는 노래를 합창한다. 어린이들은 신나는 곡조와 간단한 가사 때문에 특별히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그가 우리를 에집트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족한가!"라는 내용의 노래이다. 노래가 끝나면 포도주를 마신다. 두 번째 잔이다.

현재를 축복하며

과월절의 음식과 마짜(누룩 안 든 빵)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올린다. 먼저 쓴 나물을 먹는다. 이 때 쓴 나물은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므로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한다. 쓴 나물은 달콤하고 고소한 하로셋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이와 같은 관습은 과거엔 쓰디쓴 노예 생활을 살았으나 오늘은 달콤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상징한다. 쓴 시절이 지나 달콤한 시절이 왔다는 것이다.

다음은 쓴 나물을 마짜(누룩 안 든 빵) 사이에 넣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 이 샌드위치를 가리켜 "힐렐 샌드위치"라고 부른다. 마짜(누룩 안 든 빵)는 발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주 맛이 없는 음식이다. 이렇게 맛이 없는 마짜(누룩 안 든 빵) 사이에 쓴 나물을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을까 상상해 보라.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과월절의 맛있는 메인 디쉬(Main Dish)전에 맛없고 쓰디쓴 힐렐 샌드위치를 먼저 먹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쓰디쓴 인생을 살았으며 못 먹고 못 살았는가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 힐렐 샌드위치를 먹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히 맛있게 준비된 유대인 최고의 요리 과월절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음식을 다 먹은 후 아피코만을 후식으로 먹는다.

아피코만

이미 위에 기술한대로 과월절 식사가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은 마짜(누룩 안 든 빵) 세 개를 포개어 손으로 쥔 다음 가운데를 부러뜨려 자른다. 이때 부러진 마짜(누룩 안 든 빵)의 큰 쪽을 아피코만이라고 부른다. 이 아피코만은 메인 디쉬(Main Dish)가 끝날 때까지 먹지 않고 보관했다가 후식으로 먹는다. 아피코만에 얹힌 관습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아피코만을 훔칠 수 있다. 특별히 아이들은 아버지(인도자)의 아피코만을 훔치려고 노력한다. 잃어버린 아피코만을 다시 찾으려면 무엇인가 보상해야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아버지의 아피코만을 훔쳤다가 아버지가 자기의 아피코만을 찾을 때 선물을 요구한다. 아버지는 선물을 약속하고서야 자기의 아피코만을 찾는다. 따라서 마짜(누룩 안 든 빵)를 부러뜨린 후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짜(무교병)를 남이 못 보는 곳에 숨기고자 애쓴다. 보통은 손 씻으러 갈 때 다른 사람의 아피코만을 훔친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과월절 식사 의식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관습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미쉬나에 보면 유월절 식사 후에는 아피코만을 남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과월절 밤에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은 반드시 과월절에 제물로 바친 희생양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이 성전이 파괴된 후 더 이상 성전에서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없어졌다. 자연히 제물로 바친 양을 먹는 일도 없어졌다. 성전 시대에는 제물로 바친 과월절 양을 마지막 음식으로 먹었으나 오늘날은 아피코만이 마지막 음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된 후 아피코만은 성전에 바쳤던 희생양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쓰이게 되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과월절에 아피코만을 먹으며 성전에 제물로 바쳤던 희생양을 기억한다.

그밖에도 아피코만과 관련된 관습이 많이 있다. 아피코만에 구멍을 뚫어 집이나 회당에 매달아 놓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여행 시 휴대하고 다닌다. 아피코만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로코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피코만을 냅킨에 싸서 어깨에 올려놓고 출애굽 당시 누룩 안 든 빵을 나르던 모습을 재현한다.

집 주인이 아피코만을 어깨에 올려놓고 4미터 정도 앞으로 가면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라고 한 사람이 묻는다.

그는 "에집트에서 오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라고 다시 묻는다.

집 주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년에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축하합시다"라고 화답한다. 디아스포라에 살며 예루살렘을 그리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관습이다.

아피코만을 먹으면 과월절 식사가 끝난다. 인도자는 음식에 대한 감사 축복 기도를 올린다. 모든 사람은 세 번째 컵의 포도주를 마신다.

미래를 바라보며

식사가 끝나면 문을 열어 놓는다. 인도자는 준비된 엘리야의 컵에 포도주를 채운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은, "이 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그(엘리야)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들어와 메시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기를 기다린다.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미리 와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메시야의 도래를 선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논의하다가 해결책이 없으면 흔히 '엘리야의 결정에 맡기자'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은 함께 '엘리야후 하나비 (예언자 엘리야)'라는 노래를 부른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메시야가 이 땅에 옴으로 온 인류에게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가 오기를 기도한다. 잠시 엘리야가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유대인들은 감사와 찬양의 시를 낭송한 후 유대인 특유의 노래들을 몇 곡 부른다. '레샤나 하바아 베루샤라아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노래를 부름으로 모든 과월절 식사의를 끝맺는다.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매년 과월절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과월절을 지키자는 그들의 꿈을 이 노래를 통하여 표현해 왔다.

과월절 노래

과월절식사 때에 부르는 노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과월절을 더욱 실감나게 음미할 수 있다.

아바딤 하이누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Allegro]

아바딤 하이누 하이누 아타 브네 호린 브네 호린

아바딤 하이누 아타 아타 브네 호린

아바딤 하이누 아타 아타 브네 호린 브네 호린

한글 번역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 유대인의 과월절 2

예수님 당시의 과월절

제 2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파괴되기 이전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순례객들,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있는 유대인들의 성지 순례로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 요셉푸스에 의하면 AD 65년 과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적어도 삼백만 명의 순례객이 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푸스의 기록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를 십만 명 정도로 추정하며, 과월절엔 그 두 배에 가까운 이십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몰려들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당시 예루살렘의 크기를 오늘날의 옛성(Old City) 전체의 크기로 본다고 해도 이십만 명이면 이미 포화 상태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최소한 일생에 한 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또한 명절 중 제일 큰 명절인 과월절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순례의 시기였다. 과월절은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겨우내 내린 비로 온 들과 산은 녹색으로 물들고 각종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이다. 일년 중 예루살렘이 가장 붐비는 시기였다. 모든 여관은 순례객들로 만원을 이루었고, 집집마다 순례객들로 가득 메워질 뿐 아니라, 빈터마다 순례객들이 친 텐트들로 온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민박을 하는 경우 어느 누구도 숙박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희생 제물로 바친 양의 가죽을 집 주인에게 주는 정도였다. 양가죽은 양피지를 만들거나 물주머니, 포도주 주머니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로 유용했으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공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텐트에 숙소를 정한 사람들은 과월절 기간 내내 그곳에서 머물렀다. 좁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과월절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탈무드에선 하나의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순례 온 유대인들의 모습도 각양 각색이었다. 시리아, 소아시아, 싸이프러스, 그리스, 바빌론, 로마, 에집트 등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마다 그 지방 특유의 복장과 관습을 갖고 있었다. 언어도 다양하였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선 아람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이 혼용되었다.

과월절이 가까워지면 예루살렘에선 양, 소, 향료 등의 거래가 활발하였다. 양이나 소는 이스라엘 내에서 공급되었으나 향료는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부터 수입되었다. 향료를 실은 낙타의 대열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과월절이 가까워져 예루살렘이 인파로 북적거리면 로마의 병사들도 바빠졌다. 지중해 해변의 가이사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은 과월절이 되면 가이사리아 본부로부터 군인들을 파병하여 예루살렘 지대와 합류시켜 유대인들의 동태를 주시하게 하였다. 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드는 이 때야말로 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헤로데 궁 옆에 있던 로마 군대의 요새는 성전 안을 둘러다 볼 수 있는 위치에 높게 건축되어 있었다. 로마 군인들은 높은 요새 위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옛 성의 읍바 문과 다윗의 탑 사이에 위치한 당시 로마 요새의 기초가 남아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24 반열로 조직되어 돌아가며 한 반열씩 성전의 일을 돕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레위인들은 고향에 머무르며 가사에 종사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였다. 평소엔 한 반열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23 반열은 고향에 머무르며 가사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과월절이 되면 24 반열 모두가 성전에 나가 봉사하였다. 따라서 과월절이 되면 수천 명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도왔다.

과월절 전 날

전통에 따라 과월절 하루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남아있는 모든 빵과 빵 반죽을 없애야 되었다. 과월절엔 절대로 누룩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월절 전야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올리브 램프에 불을 켜고 흑 빵 부스러기라도 집안에 남아있진 않은지 살살이 뒤졌다. 찾아낸 빵이나 빵 부스러기, 반죽 등은 한 곳에 모아 놓고 성전에서 보내는 신호를 기다렸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누룩이 들어있는 모든 빵이나 반죽을 불에 태워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신호는 감사 제물로 바쳤던 누룩이 들어 있는 빵 두 덩어리로 하였다. 과월절 전날 사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화목제의 감사 예물로 드렸던 누룩이 들어 있는 빵 두 덩어리를 성전 바깥 회랑 꼭대기에 올려놓았다. 누룩이 들어 있는 빵 두 덩어리가 회랑 꼭대기에 보이는 동안엔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사제가 한 덩어리의 빵을 치워버려 단지 한 덩어리의 빵만이 보이면 그 시간부터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사제가 두 번째 빵마저 치워버리면 그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불에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예루살렘 온 시가지에 정확한 시각을 알릴 수 없었다. 성전이 잘 보이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보조 수단이 강구되었다. 사제들은 올리브산 꼭대기에 두 마리의 암소를 데려다가 쟁기질하게 하였다. 두 마리 다 쟁기질하고 있으면 아직은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는 표시였고, 한 마리만 쟁기질하고 있으면 그 시간부터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먹을 수 없다는 표시였다. 나머지 한 마리마저 보이지 않으면 즉시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불에 태워 없애라는 표시였다. 시계가 없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같이 동시에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없앨 수 있었다.

과월절 첫째 날

과월절 첫날 점심 무렵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양이나 염소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나아갔다. 오후가 되면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후 3시경에 제사가 시작되었다. 제사는 세 차례 반복되었다. 첫 번째 들어온 예배자들이 성전 뜰을 가득 채우면 레위인들은 성전 문을 닫았다. 성전 문이 닫히면 쇼파르(양각나팔)를 불어 희생제사가 시작됨을 알렸다. 양이 도살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주악에 맞추어 감사찬송을 불렀다. 첫 번째 예배자들의 희생제사가 끝나면 두 번째 예배자들이 자기들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다.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온다. 당시 세 번째 예배자들은 '게으름뱅이들'이라고 불리웠다. 힐렐 시대에 한 번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노인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깔려 죽은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크게 각성한 유대인들은 과월절 희생제사를 엄숙하고도 질서 있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 당시엔 두 시간 정도에 모든 과월절 희생 제사를 질서 있게 마칠 수 있었다.

희생 제사를 끝낸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의 희생 제물을 어깨에 메고 성전에서 나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과월절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과월절의 첫 날밤인 '구속의 밤'을 준비하였다. 예루살렘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여기 저기서 양과 염소를 나무 꼬치에 꿰어 굽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였다. 화로는 흙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는데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일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여기 저기 무리 지어 함께 양고기를 먹으며 과월절의 첫 날 밤을 축하하였다. 이 날 밤 모든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었다. 친척, 친구, 노인, 아이,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모두들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 초대 받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밤이기도 하였다. 이 날밤 유대인들은 에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들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신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다. 온 예루살렘은 밤새도록 하느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하느님의 기적을 노래하는 거대한 축제를 즐겼다.

유대인의 절기는 음력을 따른다. 따라서 نيسان월 14일 전야를 절기로 지키는 과월절은 보름달과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예루살렘 이 곳 저 곳에 모여 앉아 양고기를 먹으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마짜와 쓴 나물을 먹으며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였고, 포도주와 양, 염소 고기를 먹으며 자유의 기쁨을 노래하였다. 포도주를 마시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이 밤이 다른 날 밤과 다른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는가 이야기하고, 희생양, 마짜, 쓴 나물 등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설명을 마치면 다 함께 감사찬송을 불렀다. 찬송이 끝나면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당시 기도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과 로마 군인으로부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었다.

과월절 식사가 끝나면 밤이 깊어 새벽 한시 혹은 두시가 되었다. 이때부터 자유롭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든 어린이들은 잠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또다시 모여 출애굽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하여 계속 토론하였다. 한 밤중에 성전 문이 다시 열리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밤을 새웠다.

시온산 사마리아 사람들의 과월절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제 2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 희생 제물을 바치며 매년 과월절을 축하하였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자 제일 먼저 불가능해진 것은 다른 아닌 유대 종교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였던 희생 제사였다. 그 후 유대 종교는 희생 제사 없는 새로운 종교로 발전되어 나갔다. 따라서 AD 70년 이후 과월절의 희생 제사도 중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 전 유대인의 과월절의 희생 제사 의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른 아닌 시온산의 사마리아 유대인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 시대에는 늘 일년 내내 희생양을 제물로 바쳤으나, 오늘 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일년 중 하루 니산월 14일 과월절 날에만 제물을 바친다는 점이다.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성경 시대의 전통을 오늘날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과월절 의식은 학자들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기회는 일년에 한 번 밖에 없다. 과월절에 가야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과월절 희생 제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들도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과월절 전 날이 되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며 모든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집안에서 없애버린다. 과월절이 되면 모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시온산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다. 시온산은 한 때 그들의 성전이 서있던 곳으로 신성한 산이다. 산에 도착하면 각 가정 별로 텐트를 치고 과월절을 준비한다. 그들은 과월절 기간 전부를 그 곳에서 보낸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인의 과월절은 계속 새로운 전통을 만들며 계승되어 왔다. 따라서 오늘날 유대인의 과월절 행사는 구약 시대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제2성전시대 이전의 구약시대의 과월절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일체 피해왔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그 밖의 다른 유대인들이 과월절에 행하는 많은 전통을 모른다. 이러한 전통들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분리해 나가고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대에 계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과월절 의식의 기준을 철저하게 구약성서에 두고 있다는데 있다. 구약성서에서 어긋나는 것은 전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관습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오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과월절 희생제사를 준비한다. 모든 사마리아 남자들은 흰 옷을 입고 과월절을 기다린다. 희생 제사는 해지기 삼십 분 전에 시작된다. 대사제는 개회를 선언하면, 모든 사람들의 기도로 행사가 시작된다. 이 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때 그들의 성전이 서 있었던 시온산 정상을 향하여 얼굴을 향한다. 대사제는 목소리를 높여 일련의 기도문을 낭송한다. 정확하게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대사제는 그의 얼굴을 해가 지는 서쪽으로 향하고 과월절 희생양을 잡으라는 말씀이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 열댓 명의 젊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으로 양을 잡아 두 다리 사이에 눕혀놓고, 타오르는 불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서서,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은 땅거미가 지는 시간에 양을 잡을지니라"라는 대사제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 때 한 마리의 양을 여분으로 준비한다. 만일 제물로 바치는 양 중에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대체하기 위함이다. 대사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사마리아의 젊은이는 일제히 양을 도살한다. 그리고 양의 피를 취하여 자기의 얼굴에 찍어 바른다.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며 서로 어깨를 끌어 앉는 인사를 나눈다. 자기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상대방의 왼쪽 어깨에 대고 서로 끌어 앉은 다음, 다시 자신의 왼쪽 어깨를 상대방의 오른쪽 어깨에 대고 끌어 앉는 유대인 특유의 인사법이다. 끌어 앉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볼에 입까지 맞춘다.

재미있는 사실은 양을 도살한 후 양의 항문에 바람을 집어넣는 것이었다. 펌프는 미리 준비되어있었다. 아마도 내장을 쉽게 분리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사마리아 젊은이들은 도살한 양을 즉시 끓는 물에 집어넣어 가죽을 벗겨내었다. 두 개의 구멍이엔 불이 타고 있었다. 구멍이 위에는 거대한 석쇠 모양의 쇠망이 걸쳐있었고 쇠 망 사이로 불길기 솟아오르고 있었다.

양의 내장은 분리한 후 따로 모아 불구덩이 위에 놓인 석쇠 모양의 망에 올려놓아 불살라 태워버린다.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내장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장이 제거된 양은 깨끗이 물로 씻은 후 소금을 쳐서 피가 완전히 빠지기까지 두 시간 정도 기다린다. 밤 열시 경이 되어 피가 완전히 빠지면 대사제는 양고기를 불에 구우라고 명령한다. 청년들은 피가 완전히 제거된 양들을 나뭇잎과 풀잎으로 싼 뒤 흙을 발라 불에 구울 준비를 한다. 대사제의 기도와 함께 청년들은 막대기에 꿰 양들을 어깨에 메고 나가 불구덩이 위의 올려놓는다. 양이 불에 잘 구워져 익히려면 적어도 세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기도하던지, 잠을 자던지, 혹은 서로 이야기하며 기다린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의 과월절 행사는 출애굽 당시 급하게 먹던 전통을 따라 불에 잘 익은 양고기를 급히 먹는 과월절 식사로 절정에 이른다. 과월절 식사는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 받은 후 하느님과 화해된 상태에서 하느님 앞에서 먹는 거룩한 식사이기에 하느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축복의 식탁이다. 밤 한시 경이 되면 모든 이들은 일어나 손과 발을 씻고 흰 옷을 입고 과월절 식사를 준비한다. 사마리아인들은 시온산에서 뜯어온 쓴 나물과 마짜(누룩 안 든 빵)을 잘 익은 양 고기 위에 얹어 놓는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대사제가 축복 기도를 올린다. 기도가 끝나면 양고기를 텐트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에게까지 나누어 준다. 이 때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그들이 에집트를 떠나던 때를 회상하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양고기를 먹는다. 보통 20 분 이내에 양고기를 다 먹는다. 마짜와 쓴 뿌리는 빼 놓을 수 없는 과월절 식탁 메뉴이다. 대부분의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혹은 서로 이야기하며 아침이 오기까지 밤을 새운다.

자유를 노래하는 축제

유대인들은 과월절 음식을 먹을 때 뒤로 비스듬히 편안하게 기대어 먹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령 해석집인 미쉬나에 보면 모든 유대인은 과월절 식사 때에 반드시 뒤로 기대어 먹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날만은 뒤로 기대어 느긋하게 먹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 로마 시대의 관습에 따르면 당시 모든 자유인은 식사할 때 뒤로 기대어 음식을 먹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랍비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과월절 식사만은 모두가 뒤로 기대어 먹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유인인 것을 만끽하며 누리게 하였다. 에집트에서 노예였던 그들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출애굽 하여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이 된 역사적 사실을 축하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과월절

예수님은 최후의 과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며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다. 당신 자신을 과월절에 바쳐질 희생양으로 인식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하느님의 신이 그들을 넘어가셔서(과월; pass over)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갖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을 가르치셨다. 과월절마다 수많은 양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되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되실 것을 그가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과월절 식사를 통하여 가르치신 것이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과월절의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니산월 14일 즉 과월절 바로 전 날에 처형되셨다. 이 날은 과월절 양이 도살되는 날과 일치한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를 살리신 과월절 희생양이시다.